

지상진료실

턱 교정 수술(Ⅸ) -턱변형과 악관절 유착증-

악교정의과연구회
대구파티마병원 치과
안재진

악관절 유착증이란 골성 혹은 섬유성으로 하악과두가 관절외에 유착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원인은 외상성 손상, 국소적 감염, 골수염, 전신적 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요소 중 외상성 손상에 의한 골성 악관절 유착증의 발병 빈도가 가장 높으며, 임상적 증상으로는 첫째, 개구제한과 턱관절 운동성 감소와 그에 따른 구강청결상태 불량, 치아 우식증, 치은염 등이 관찰되며 둘째, 편측성 악관절 유착증으로 인한 안면부 비대칭과 정중선의 편위현상, 경사진 교합 평면을 들 수 있다. 셋째, 양측성 악관절 유착증인 경우 특징적인 하악골 저발육 현상인 bird face를 관찰할 수 있다. 악관절 유착에 의한 턱 변형은 환자에게 기능적, 심미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을 주게되어 사회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진단은 임상적으로 개구제한

과 안모등을 보아 비교적 용이하고 방사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악관절 유착증에 의한 턱변형의 처치는 유착된 과두를 절제하고 모양을 다듬어 주는 과두절제술과 악관절성형술, 소실된 악관절의 재현을 위해 Prosthesis의 사용, 안모개선을 위한 LeFort I osteotomy,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Genioplasty 등의 다양한 악교정 외과술식이 있다. 본 증례는 출생시 외상으로 인하여 좌측 악관절에 편측성 골유착증이 발생한 41세의 여성환자로, 내원시 개구제한이 약 11mm였으며, 교합면의 경사도는 좌·우측 제1대구치를 기준으로 약 15mm의 차이가 있었고, 정중선 편위, 하악골 저발육, 이로인한 심한 안면부 비대칭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Skull P-A, Cephalogram, Panoramic view, Towe's view,



Fig. 1. 술전 환자의 정면사진으로 출생시 외상으로 인하여 좌측과두의 편측성 골유착증으로 인해 심한 안면부 비대칭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Facial CT 등으로 골 유착 상태, 안면비대칭 정도, 하악골의 좌우 길이 등을 분석하여 수술 계획을 수립하였다.

술자는 이개후방과 악하부위를 연결하는 절개선을 통하여 악관절 성형술 및 하악과두 절제술을 시행한 후 Techmedica회사의 Titanium Condylar Prosthesis를 이용하여 하악과두를 재형성하여 악관절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좌측 하악 길이를 약 15mm 정도 길게하였다. 상악에서는 LeFort I osteotomy를 시행하여 우측 상악의 길이를 약 8-10mm 정도 짧게 해주어 교합면 경사 및 정중선 편위현상을 해소하여 주었으며 우각부 성형술도 동시에 시행하여 좋은 안모개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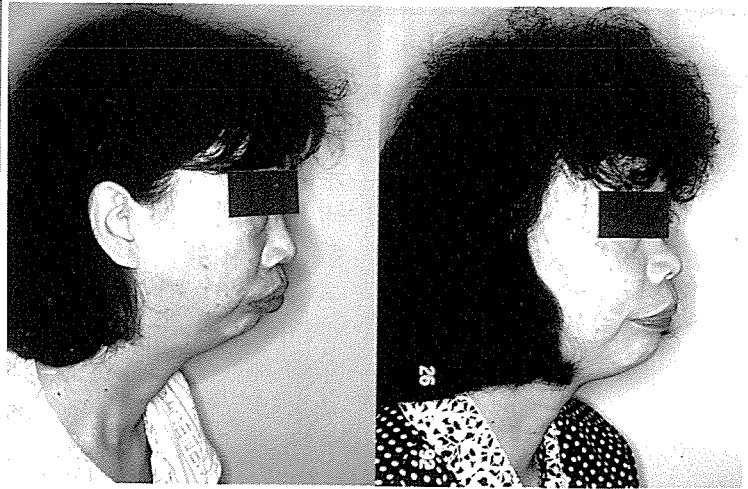


Fig. 2. 수술 전 환자의 측면사진으로 하악성장이 부족하여 하악이 후퇴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턱교정 수술후 아래턱이 전방이동되어 비교적 정상인 얼굴로 개선되었다.

악관절 성형술 및 condylar Prosthesis의 매식, LeFort I osteotomy, 하악 우각부의 성형술

을 시행한 결과 상·하악골의 대칭성과 교합평면의 경사 및 정중선의 편위현상이 개선되었다.